



위대한 작가의 평범한 삶

《조셉 콘라드》 펴낸 나영균씨

활발한 연구와 번역활동으로 영문학계의 대모역할을 해 왔던 나영균 교수(67,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퇴직 후 《버지니아 울프》, 《조셉 콘라드》(이상 정우사)를 잇따라 펴냈다.

“그동안 논문 아니면 안 쓰겠다는 도도한 태도였지요 하지만 일반인들도 외국문학의 풍요로운 열매를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인들의 삶은 그 자체가 흥미로울 뿐 아니라 작품과 깊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작품을 이해하는 기초자료 역할을 한다. 나영균이 일반인을 위해 특별히 평전이라는 형식을 택한 것도 그 때문이다. 버지니아 울프의 전기 내 놓고 보니 의외로 외국 유명 작가들의 전기 없애 보람도 느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작가들의 삶 속에서 에피소드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울프나 콘라드도 그렇지만 앞으로 계획 중인 제임스 조이스나 윌리엄 포크너가 워낙 거물급이라 자료는 많다는 것. 하지만 집필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자료를 선택하고, 버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이 되버리기 때문이다.

조셉 콘라드의 경우는 다른 작가들처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로맨스나 기행도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 컸다. 그의 일생은 어디에서 어디로 항해했다는 것, 무릎이나 팔꿈치 등이 자주 아팠다는 것, 책상 앞에 앉아 끄꽂거리며 글을 썼다는 것, 생활비가 없어 원고료를 선불해 달라고 잡지사에게 편지하는 것 등 평범한 이들의 삶과 별다르지 않은 사실들로 가득 차 있다.

“정확한 정보를 주면서도 독자의 흥미를 놓치지 않으려면 집필자의 역할이 중요하지

요.”

상상력을 발휘해 사실과 사실 사이의 빈 칸을 메우는 일은 온전히 집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더 어려운 것은 상상력이 사실을 거슬러서는 안된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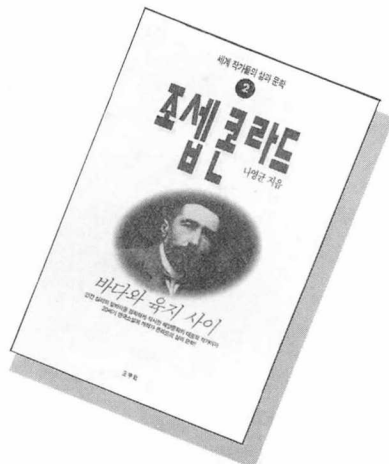
책에 반복해서 나오는 몸이 아팠다는 사실 역시 많은 연구자들은 어디까지 실제 통증이었는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폴란드 독립운동을 주도하다가 유배당한 아버지와 보냈던 어린 시절, 후한의 유배지에서 일찍 어머니를 여읜 비극적 상황이 심리적으로 굴절 작용을 일으켰다면 시시콜콜해 보이는 병상기록도 사소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작가 삶의 반영물인 작품 해석도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작가들 역시 여느 사람과 같이 고민, 비애, 정열 등을 겪지만 그것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일반인들이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무정형의 영향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이다. 아쉬움이 남는다면 콘라드의 탁월한 작품이 국내에 많이 번역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우리나라 번역문화의 현실이지요. 장사가 되는 작가의 작품을 빼 놓고는 구멍투성이입니다. 콘라드도 구멍에 빠진 작가지요.”

— 이현주 기자



디지털의 원류는 우리 봉화와 윗가락

《봉화에서 텔레파시 통신까지》 펴낸 진용욱씨

예정이다.

진교수는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을 해냈다. 북한학자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남북 국어 정보, 한글 자판, 컴퓨터 자모순 통일’을 골자로 하는 한글통일안을 발표한 것이다. “민간 차원에서 남북사이에 박힌 돌을 빼내어 하나하나 징검다리를 만들면 우리는 분단의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는 진교수는 문화적 통일이 군사경제적 통일보다 더 영향력 있다고 주장한다. 정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 워드프로그램인 아래아한글을 암암리에 북한에서도 유용하고 있다고 진교수는 말한다.

진교수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또하나의 사업은 음향학회에서 추진하는 에밀레종 복원사업이다. 12월 학술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에밀레종을 음향공학적으로 최적의 상태로 복원하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그 울림을 재생하고자 한다.

“한국은 21세기 정보대국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형이 우리에게 있고 현재의 발전과 응용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세계화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정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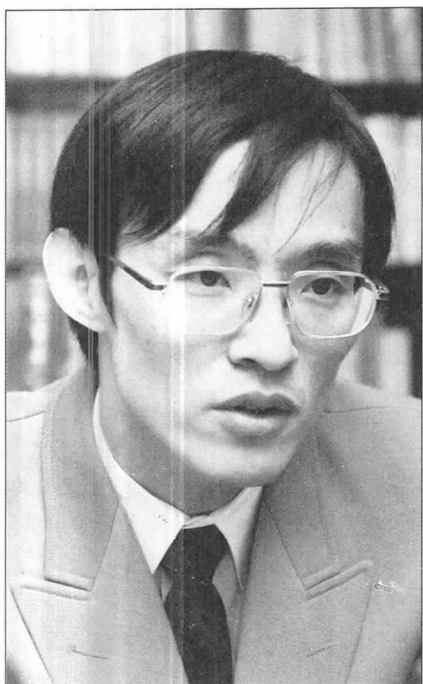
진용욱 교수(53·경희대 전파공학과)는 독특한 사람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한국음향학회 회장이라 찍힌 명함을 건넨다. 연변이나 신라유적지의 고적답사에 동행하는가 하면 국어정보학회 부회장의 직함도 가지고 있다. 전공과는 별 상관 없이 보이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그의 전공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된 것들이다. 음파와 진동, 음향 연구와 한글의 부호화 작업은 마땅히 그의 전공인 정보통신 기술분야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통신을 쉽게 이해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출간했습니다. 이론은 외래의 것일지언정 사례는 우리 것에서 찾자는 생각에 연구를 시작했는데 의외로 통신과 디지털의 원리가 우리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개화기 실학파의 사상인 ‘동도서기-원리는 동양에 따르되 그릇은 서양에서 배운다’는 말이 정말 옳은 이야기지요.”

《봉화에서 텔레파시통신까지》는 진교수가 15년 동안 그 원류를 찾아 역사 탐구 및 자료수집, 여행 취재를 통해 집필한 책이다. ‘봉화는 광통신의 원조, 컴퓨터 5단위 부호의 원형’ ‘4비트 원형은 우리 윗가락에서 찾을 수 있다’ ‘깍두기 썰기는 양자화의 첨병’ ‘숫대와 신단수, 백두산 천지는 하늘의 기운을 땅에 있는 안테나’ 등의 논리를 기술공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나치게 국수적인 시각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가 중점을 둔 것은 사물을 주체적인 시각에서 보자는 것이다. 진교수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검증용 거치기 위해 미국에서 영문논문을 발표할





정보검색사의 직업세계 소개

《어느 정보사냥꾼의 고백》 펴낸
이종언씨

익숙해져 있었다. 90년에 귀국한 후
기업체의 의뢰를 받아 ‘공정최저가’에
관한 일을 했는데 그 일보다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더
많았다. 이종언씨가 정보검색일을 전문으로
하게 된 계기라면 계기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알 수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의 정보들을 접하고
분석하면서 가치있는 정보를 창출한다는
것이 이 직업의 매력입니다.”

이 책을 통해 정보의 중요성과
정보검색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이종언씨는 아직까지
일천한 국내 정보검색산업분야에 핵심적인
영향력을 지닌다. 후진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그는 최근 생산성본부에 정보검색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공식적인 인증제도를
만드는 일에 열심이다.

— 박남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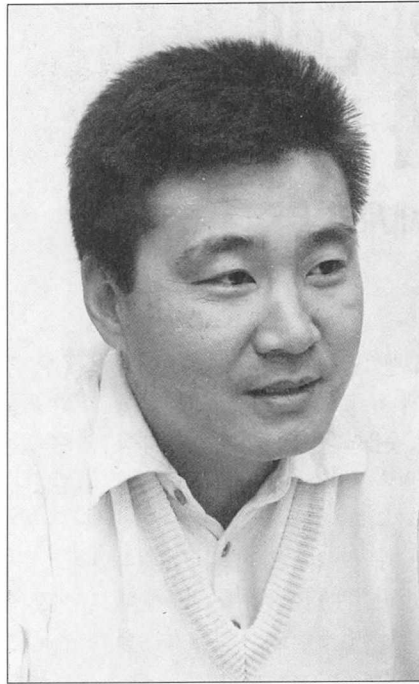
이종언(37)씨는 국내 제 1호로 꼽히는
정보검색사다. 정보의 부가가치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던 90년, (주)넥서스
컨설팅이라는 정보전문 검색업체를 차려
현재까지 굵직한 것만으로 100건이 더
넘는 일을 처리했다. 그런 그가 최근
《어느 정보사냥꾼의 고백》(문예마당)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지난 7년간 그가
추진해온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그것의
작업과정과 분석결과, 주변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엮었다.

“정보검색사는 선천적으로 분석적인
기질과 수집력, 언어능력은 물론이고
취합된 정보를 통해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까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각종 사례들은
정보검색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단번에 짐작하게 한다.

독일의 이동통신 시장 현황은 어떠한가.
베트남 진출을 위한 현지산업 분석 같은
경제분야의 정보들은 물론이고
코리아게이트 사건의 주역 박동선씨의
근황이나 미국 행정부의 대한(對韓)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왔나 같은 정보도 이종언씨
덕분에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다. 스위스 은행에 과연 노태우씨의
비밀계좌가 있는지 추적한 것이라거나
불멸의 명약으로 미국시장을 강타한
멜라토닌의 의학적 근거에 대한 분석도
눈길을 끄는 정보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휴스턴 대학에서
분석화학을 전공한 이종언씨는 실험결과를
시뮬레이션화 하는 작업을 하면서 늘
컴퓨터와 함께 살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축구팬이 알아야 할 흥미로운 축구상식

《재미있는 축구이야기》 펴낸
강신우씨

강신우씨의 해설관이다. 그러다 보니
선수들의 반응도 좋다.

이 책은 국내의 선수들의 프로필,
해외명문클럽 탐방, 월드컵의 역사와 기록,
축구의 규칙과 전술을 다룬 축구사전이다.
축구가 기록경기는 아니지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축구기록>은 축구와 관련한
특이한 내용들을 전한다.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문지기는
영국의 켈리 패터플크 선수. 민첩성이
생명이어야 할 그의 체중은 무려
141킬로그램. 이밖에도 득점에 얽힌
진기록을 수록했다.

사회를 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기억을 되새기는 강신우씨는 후배들에게
“축구선수도 사회 구성원의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을 주문한다. 프랑스
월드컵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왕년의 스타플레이어 미셸 플라티니를
본보기로 들었다.

축구에 관한 글쓰기를 계속 해나갈
생각인데, 12권짜리 <세계의 명문클럽·
명선수>(가제)는 기획이 끝난 상태.
도서출판 윤점에서 펴낼 예정인 이 책은
축구에 관한 백과사전이다.

— 최성일 기자

강신우씨(37, 축구해설가)에게는 서울대
출신 국가대표 축구선수 1호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서울체육고를 졸업할 때
사립대학들의 스카우트 제의를 뿌리치고
서울대에 진학했다. 대학 2학년 때 국가대표
2진에 선발되면서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한다.

강신우씨는 공격을 맡았다. 2개의
도움주기로 3대 1의 승리를 이끈 83년
한·일 정기전, 결승골을 넣은 베켄바워를
앞세워 내한한 뉴욕 코스모스와의 경기,
전반에 선취골을 넣고 교체돼 후반
역전패하는 과정을 지켜본 뉴델리 아시아
경기대회 대 일본전 등을 기억에 남는
경기로 꼽는다.

《강신우의 재미있는 축구이야기》
(창작시대사)는 “어제는 오늘보다 나아야
한다”는 그의 축구인생 철학의 소산이다.
많이 알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글쓰기로 이어진 것. 강씨는 보기 드물게
공부를 많이 한 운동선수이다. 그렇지만
선수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좌절도 많이 겪었다. 영업사원
시절에는 영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강고수부지에서 눈물을 흘릴리기도 했다.

지금은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 축구해설가로, 스포츠 브랜드의
영업본부장으로, 강단에 서는 강사로,
방송진행자로 분주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업은 축구해설가다. 서울방송
해설위원으로 맹활약 중이다.

“선수들의 잘못을 노출시키기 보다는
장점을 부각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잘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설명에 주력하는
편입니다.”

